

# 가동률 저하로 방산업체 심각한 경영난 겪어... - '94 방산정책개발 심포지엄 및 안보 특별 강연회 -



◀ 鄭峻昊 국방차관과 黃明秀 국방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150여명의 産·學·研·軍·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는 黃東準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로 방위산업 정책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제2부는 李基鏞 연세大 교수의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한 안보 특별 강연순으로 진행됐다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방위산업 학회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제반여건 및 2000년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부합된 방위산업 정책과 경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11월 22일 캐피탈 호텔에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방산업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이라는 주제로 '94 방산정책개발 심포지엄 및 안보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방위산업 성과와 경영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KID姜士聲 상무는 방위산업이 그동안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 개발 노력을 통해 기본병기 생산 및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여 자주 국방력 증진에 기여했고 관련 기술을 파급시켜 중화학공업발전과 기술인력 양성에 공헌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 가동률이 79.2%인데 반해 방산가동률은 54.2%로 60%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일부 기본병기 생산업체는 30%도 안되는 상황으로 방산업체가 심각한 경영

난을 겪고 있다며, 이는 군의 과도한 소요제기(ROC)로 국내연구개발 보다 해외구매 및 기술도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방비 감축 압력속에 운영유지비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해 무기체계 획득 비용과 연구개발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기술도입시 후속 연구개발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화 시대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중앙大 李在潤 교수는 서방 선진국의 군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국의 군사대국화 경향이 더한층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통일준비 과정과 통일후의 안보상황까지 고려하여 방산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방위 조기탐색 경보 체제와 선제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고도정밀 무기체계 및 장비를 집중 개발해 정보전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신국방 가치 창출기구로 <기술, 경제, 안보위원회>라는 범 국가적 통합의

사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방위산업 구조 조정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국방대학원 金鐵煥 교수는 향후 조립, 가공 위주에서 핵심 기술과 부품 위주로 방산기술을 개발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군의 정보화 및 기술집약형으로 경제성을 추구하고 방산개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계약 및 원가계산 제도면에서 유인부확정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방산조세금융 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하며, 특히 UR 보조금 협상에서 정치, 안보를 위한 정책금융은 허용됨에 따라 방산육성기금을 산업지원금융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의 653억에서 2,000억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선도기술로서 방산기술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千吉成 박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방위산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은 방산기술육성 정책이 단기적 시각에서 일과성으로 진행되고 계수 위주의 전력증강에 치중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국가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효율적으로 전력증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능력보유 자체가 무조건적인 해외 무기구매 보다 효과를 발휘해 전체 전력증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전력증강비의 20~30%, 국방비의 7~10%로 조정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며, 중요기술 우선순위 선정시 정보획득기술, 전천후 능력부여 기술, 정확성 향상 기술 및 생존성 보장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 한국 방산업체 시찰

— 항공, 전자 분야 등 양국 방산협력분야 확대 희망 —

**韓·佛** 방산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국측에서 鄭秀烈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外 21명과 프랑스측 Guy RUPIED 공동의장外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8일부터 산업시찰, 회의 등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양국간 방산협력 증대를 위한 전체회의와 개별업체간 협력사업을 분과회의로 구성, 운영하여 심도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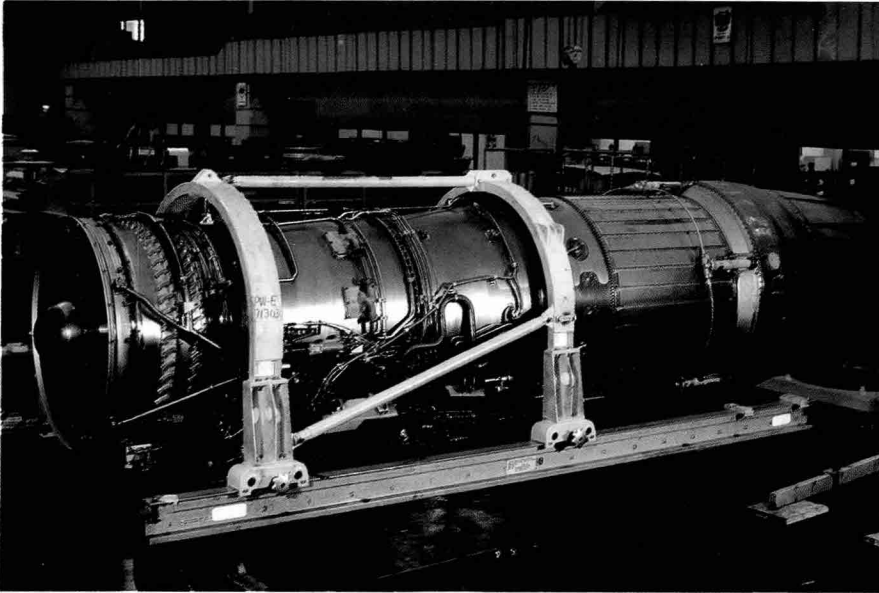
프랑스 참가업체들은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방문하여 한국의 방위산업을 이



해하는 계기를 가졌는데, 프랑스측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상당히 발전한 것을 인식하였으며 또한 프랑스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鼓舞되었다.

# 삼성항공, F-16 엔진 1호기 출하식 가져

- 노스롭社와 F-5 공동 개조사업 계약도 체결 -



◀ 이번엔 처음으로 출하하는 F100-PW-229 엔진(사진)은 미국의 프랫 앤드 휘트니(Pratt & Whitney)社가 개발한 엔진으로 F-16 및 F-15 전투기에 장착 운영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터보팬 방식 항공기 엔진이다

**삼성** 항공은李大遠 사장, 프랫 앤드 휘트니社의 포드 부사장, 공군장성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4일 창원 2공장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의 주력 전투기인 F-16에 장착될 엔진(F100-PW-229) 1호기 출하식을 갖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항공기용 터보 팬 엔진 생산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항공은 내년 국내에서 최종 조립한 F-16 1호기에 장착할 예정인 이 엔진 생산을 위해 지난 3년간 총 8천만불의 투자와 연인원 2천2백명을 투입하였다.

KFP사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 출하된 이 엔진은 원제작사인 프랫 앤드 휘트니社로부터 키트(KIT)를 들여와 조립·생산했으며 삼성항공은 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엔진부품 국산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터보 팬 엔진을 국내에서 처음 조립·생산하는 기술 축적 과정을 통해 향후 민간

중형항공기(터보 팬 엔진 장착)엔진 사업, 국내 독자 모델 엔진개발 추진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항공은 미국 노스롭 그라만社(F-5 항공기 원제작사)와 최근 F-5 국제공동 개조사업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 세계 26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1천7백여대의 F-5 전투기를 대상으로 성능개량과 수명연장을 하는 이 사업은 기존 F-5의 노후 부품을 비롯한 레이다 등을 최신에 전투기 수준으로 각종 전자장비를 개량, 기골보강 후 판매하는 것을 포함, 총사업 규모가 50억불에 달하는 국내 항공업계로서는 최대규모의 국제공동사업이다.

이번 전투기 개조사업은 군비축소로 각국이 고가의 신규 항공기 구입보다는 기존 항공기의 성능개량 및 수명연장을 통해 비용절감, 항공기 첨단기술 습득을 선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삼성항공은

F-5 전투기의 개조 설계에도 참여하여 항공기 기체 및 전자시스템 설계기술 확보도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한편 노스롭 그라만사는 이미 스페인의 카사(CASA), 캐나다 브리스톨사와 본 사업을

위한 협정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삼성항공이 참여하는 F-5 국제공동 개조사업은 4개국, 4개사의 협력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 2 회 모의훈련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 열려...



◀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실시간 영상시현 시뮬레이터 「Sky View 1」

**공군** 전투발전단과 대한항공이 공동 주관한 제2회 모의훈련장치(시뮬레이터) 세미나와 전시회가 11월 4일 충남 계룡대내 기지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와 전시회는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선박용 및 원자력발전소에 관련한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운용 경험이 총 집합되어 국내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 관련 기술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해외기술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기술개발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1회때보다 규모가 확대된 이 세미나에서는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등 국내업체 및 육해공 3군의 시뮬레이터 연구진 그리고 리플렉톤, CAE-Link, E&S등의 미국 시뮬레이터 제작사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개

발한 실시간 영상시현 소프트웨어인 “Sky View 1”의 소개를 비롯하여 16편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전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창공 '91 비행 시뮬레이터를 비롯해 각 참여회사 및 기관의 시뮬레이터 개발과정을 담은 녹화 비디오, 사진 등이 공개되었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의 윤석준 박사는 “국내 항공사와 각 군은 그동안 조종사 훈련시 필수장비인 시뮬레이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회사로부터 전량 수입해 왔다”면서 “이제 국내의 시뮬레이터 관련기술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만큼 앞으로는 중저급의 시뮬레이터는 국내개발을, 고급의 경우도 국제공동개발사업을 유도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